

TV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40 코로닝 A	00 KBS 뉴스광장	00 코로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폭풍의 여자>	00 KBC 모닝와이드 55 닥터36부
8	00 아침경제 끝난 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뉴스타임 40 지구촌 뉴스	30 생방송 오늘 아침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일편단심 민들레> 40 여유만만	30 아침연속극 <청담동 스캔들>
10	20 시사 인사이트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자전거(재) 55 튠트생활제조	00 TV 소설 <왕의 얼굴>(재)	10 좋은 아침
11	3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네트워크 특선 <아름다운 추억 아름다운 사람들> 55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세상	40 수목드라마 <왕의 얼굴>(재)	00 SBS 뉴스 30 2014 지역희망박람회
12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55 바른말 고요말	00 주말드라마 <장미빛 연인들>(재)	00 SBS12뉴스 45 닥터365 55 간강클리닉 55 날씨와 생활
1	40 김부장의 뉴스통	00 시사기획 창(재) 55 KBS 파노라마 플러스(재)	00 위기탈출 넘버원	
2	50 직인직설	05 우리말 겨우기(재)	00 KBS 뉴스타임 10 역사저널 그날(재)	25 똑?똑! 키즈스쿨 55 MBC 뉴스
3		00 KBS 뉴스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꼬마신랑 콩도령(재) 30 자동 공부책상 위키	05 헬로키즈 공룡이 살아있다2 55 응개 소나타
4	00 정응관의 시사변법	00 시사진단 55 튠트생활제조(재)	00 TV 유지원 콩다공 30 마법 천자문	25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아>(재)
5	00 하종대의 쾌도난마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꼬마기차 추추 20 인간극장 스페셜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6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6시 내교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생생 정보통	10 생방송 '빛날'
7	20 웰컴 투 시월드(재)	00 KBS 뉴스7 30 필통	50 일일드라마 <달콤한 비밀>	15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 55 MBC 뉴스데스크
8	20 관촬 카메라 24시간	25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사랑>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0 비타민	5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아>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생방송 집중토론 55 TV동화 빨간자전거	50 수목드라마 <왕의 얼굴>	00 드라마 스페셜 <피노키오>
11	00 내조의 여왕(재)	00 KBS 뉴스라인 40 KBS특선 <새상을 바꾸는 생각 후마니티스>	10 가족의 품격 플하우스	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2	4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①:50 신대동여지도(재)	3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①:10 생활의 발견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세상의 모든 다큐 ①:35 한국의 일상(재)	35 MBC 뉴스 24 ①:05 한겨레는 세상 희망 프로젝트 나두면 행복



김상경



신하균

물오른 코믹 연기에 안방극장 웃음폭발

섹시하거나 멋있지 않은 재벌2세

‘가족끼리...’ 문태주 역 김상경

외모만 34세로 변한 70대 수전노

‘미스터 백’ 최고봉 역 신하균

김상경(42)과 신하균(40)이 나란히 안방극장과 스크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물오른 코믹 연기로 웃음보를 터뜨리고 있다. 특히 두 배우 모두 한때는 ‘청춘스타’로 군림했으나 이제는 어 느덧 ‘아저씨’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나이가 됐고, 그만큼 외모도 변했다는 점에서 비교의 재미가 있다. 나란히 1998년 데뷔해 절정의 인기를 누리다가 어느새 불혹을 넘긴 김상경과 신하균은, 40대라 서글픈게 아니라 40대라 더 편안하고 여유롭게 연기를 하며 팬층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경찰특공대’ 김상경이 살집 두툼한 문태주 상무로=지난달 30일 시청률 37%를 기록하며 인기 고공행진 중인 KBS 2 TV ‘가족끼리 와이래’는 코미디에 방점이 찍힌 연속극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전혀 섹시하거나 멋있지 않은 재벌 2세 문태주 상무가 놓여있다. 대개 ‘실장님’, ‘본부장님’ 등으로 불리는 드라마 속 재벌 2세는 근사한 훈남의 모습이고 대체로 총각인 젊은 배우가 연기한다. 그런데 웰컴, 문태주 상무는 살집이 두툼한 아저씨 체형에다가 하는 짓도 유지하다. ‘까칠’해서 오히려 매력적인 ‘나쁜 남자’ 형과도 거리가 먼 상무는 처음 보면 성질 못된 완벽주의자 같지만 알고 보면 공부만 잘했지 인 간관계는 영 속맥인 허당 캐릭터다.

김상경은 그런 문태주를 능청스럽게 귀엽게 연기하면서 매끄러운 웃음을 전해주다. 놀라면 커다란 엉덩이는 어찌지 못 하고 머리만 모래 속으로 치박는 ‘바보’ 타조처럼 문태주는 매번 속이 뻥뻥 노출되고 몰래 한다고 하는 행동을 들킨다. 아이큐가 높아 멘사 회원이지만 하는 짓은 유치원생이 따로 없는 것. 김상경의 이러한 코믹 연기는 흥상수 감독과 오랜 세월 호흡을 맞추며 쌓은 내공 덕분. ‘생활의 발견’, ‘극장전’ ‘하하하’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고 능청스러운 코믹 연기를 완전히 체화하는 데 성공한 그는 현실에서 실제로 ‘아저씨’ 대열에 접어든 것과 맞물려 ‘김상경 표 코미디’를 완성시켰다. 그리고 이번에는 드라마를 통해 그런 내용을 뽐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김상경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절대 아니다. 1998년

드라마 ‘애드버킷’으로 데뷔해 ‘초대’ ‘경찰특공대’ ‘인간시장’ 등을 거치면서 그는 몸매 다부지고 건강한 매력을 뽐내던 청춘이었다. 영화 ‘살인의 추억’과 ‘화려한 휴가’를 찍을 때까지도 그런 모습은 유지됐다. 하지만 그사이 아버지가 되고 마흔을 넘어서 김상경은 이제 더이상 하룻밤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 혈안이 된 헬기장장관 총각이 아니라, 지난달 20일 개봉한 영화 ‘아빠를 빌려드립니다’에서처럼 딸을 위해 뭐든 해야하는 나이가 됐다. 그런데 지금의 그가 펼치는 ‘찌질하고 소심한 남자의 코믹 연기가 압권인 것이다. 멋진 청춘스타는 간데없지만 코미디가 되는 김상경을 과거로 되돌리고 싶지는 않은 이유다.

◇‘공동경비구역 JSA’의 신하균이 괴팍한 최고봉 영감으로=2000년 ‘공동경비구역 JSA’의 정우진도 일찌감치 사라졌다. 아직 못가 얼굴 가득하고 순수함으로 무장했던 정우진은 14년 뒤 괴팍하고 가부장적이며 수전노인 70세 노인 최고봉 영감으로 변했다. 격세지감이다. 그런데 웃긴다. 그래서 반갑다.

MBC TV 수목극 ‘미스터 백’에서 신하균은 70세 최고봉 영감과 어느날 갑자기 외모만 34세로 변한 최신행의 두 역할을 해내고 있다. 둘이 한 인물이나 1인2역은 아니지만, 난데없이 신체만 젊어지면서 몸 따로 머리 따로 노는 캐릭터인 탓에 최신행을 연기하는 게 녹록하지 않다. 그런 인물을 맡아 신하균은 자유자재로 화면을 뛰어다닌다. 재벌이지만 노인이라 ‘까칠한 매력’의 청년이 아니라 실속 있고 멋진 영감을 신하균은 강약을 조절하는 성격 연기와 슬랩스틱 코미디를 뒤섞어 말 그대로 재미있게 표현해내고 있다. 잔주름이 살아있는 얼굴의 모든 근육을 사용해 짜증과 귀찮음, 허세를 표현해내고 매사 이죽거리고 잘난척 하는 게 그 맛이 살아있다. 특히 비서 역활의 이문식과 펼치는 ‘콩짜’는 배꼽을 잡는다.

그는 지난달 26일 개봉한 코미영화 ‘빅매치’에서도 전제 사 이코 역을 맡아 코믹 연기를 펼쳤다. 편집중이었고 광적인 사 이코 연기에 일가견이 있는 신하균은 이번에도 개성 강한 역할을 제대로 살리면서 그 속에서 웃음을 유발해냈다. 1998년 영화 ‘기막힌 사내들’로 데뷔한 신하균은 ‘공동경비구역 JSA’ ‘지구를 지켜라’ ‘웰컴 투 동막골’ 등을 통해 청춘스타로 인기를 모았다. 얼굴 가득 짓는 순박하고 환한 미소가 트레이드마크였다. 그랬던 그는 이후 ‘더 게임’ ‘고지전’ ‘런닝맨’ 등의 작품을 거치면서 순수함을 걷어내고 본격적으로 성격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드라마 ‘내 연애의 모든 것’에서는 까칠함에 귀여움을 가미한 캐릭터를 완성시키더니 이번 ‘미스터 백’에서 다시 한 번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순수남에서 괴팍남으로 변신한 신하균의 오늘은 성공적이다.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육아를 부탁해)	14:30 미술탐험대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05:40 엄마없이 살아보기(재)	10:10 세계 전문목 아틀라스	14:45 미연마이로봇	19: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06:10 세계의 눈 (자연)(재)	10:4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꼬마 철학자 추고	19:30 EBS 뉴스
07:00 시계마을 타기톡(재)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05 어린왕자	19:50 다문화 고부열전
07:15 곤(재)	11:20 세계대기여행	15:30 정글북	20:40 다큐 오늘
07:30 책과 땅(재)	(가을남방기행, 스코틀랜드)	15:50 모피와 친구들	20:50 세계대기여행 (취미 핀란드)
07:45 로보카 폴리(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당동당 유치원(재)	21:30 한국기행
08:00 당동당 유치원	12:10 특별다큐 <교육의 길을 묻다>	16:20 버블버블 마린	<통영비바와 사랑에 빠지다>
08:20 뽀뽀뽀 뽀로로(재)	13:05 지식생활	16:35 윈더볼츠	21:50 EBS 다큐 프라임 (가족소크)
08:35 방귀대장 뽀뽀이	13:10 부모탈탈(재)	16:45 Why-최고! 호기심탐지(재)	22:45 EBS 특별생방송
08:50 Why-최고! 호기심 탐지	13:40 내 이름은 경미	17:00 방귀대장 뽀뽀이(재)	흔들리는 수능, 대안은 있는가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13:50 뽀뽀뽀 뽀로로	17:1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23:35 세계 전문목 아틀라스
09:2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4:00 시계마을 타기톡	17:30 로보카 폴리	24:05 인성채널-안녕 우리말
09:35 따개비 루	14:15 치료와 친구들	17:45 뽀뽀뽀 뽀로로	24:10 한국영화특선 <내 사랑 내 고향>

EBS플러스1

00:00 2016 수능일기	12:10 2016 수능개념 (윤선명의 영어)
<유종현, 윤선명의 국어>	13:05 " (윤정환의 영어)
00:50 <오광석의 수학 I>	14:00 고등예비과정 (김소연의 수학 II)
01:40 <오랜지의 영어>	14:50 " (주혜연의 영어)
02:30 수능길잡이<문학>	15:40 2016 수능일기
03:20 " (수학 I)	16:30 " (오랜지의 영어)
04:10 " <미적분과 통계기본>	16:30 " <유종현, 윤선명의 국어>
05:00 " <영어특해 유형>	17:20 " <오광석의 수학 I>
06:40 " <박근영의 미적분 I>	18:10 고등예비과정 (장동진의 국어)
07:30 " <차현우의 미적분 II>	19:20 " (최은진의 수학 I)
08:20 " <구명석의 확률과 통계>	20:00 " (김소연의 수학 II)
09:10 " (독서와 문법)	20:50 " (주혜연의 영어)
10:00 고등예비과정 <장동진의 국어>	21:50 수능길잡이
10:50 " <최은진의 수학 I>	<구명석의 확률과 통계>
11:40 박복의 이슈를 만나는 경제	

EBS플러스2

07:00 한국어 능력 시험대비 강좌	16:20 " (사회5-2)
07:30 전철한 수학 익힘풀이 (6-2)	16:50 " (사회6-2)
08:0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08:30 한경TESAT 시험대비 강좌	<전과목 6-2>
09:10 TV 중학 (국어①②)	18:00 TV 중학 (영어3-2)
09:50 " (수학①)	18:40 " (수학3-2)
10:30 " (도덕)	19:20 과학탐정단 시드
11:10 " (국어③④)	19:40 사이먼-백만인의 지구뉴스
11:50 " (수학2(하))	20:00 EBS 인문학 특강
12:30 등업산공 (사회1)	20:50 EBS 기획리포트
13:10 " (역사)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13:50 " (역사2)	22:00 등업산공 (역사(하)2)
14:30 " (사회2)	22:40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중급)
15:20 만점왕 (사회3-2)	23:20 중학e포스 영문법3
15:50 " (사회4-2)	24:00 백점공략 (수학·과학3)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3일(음 10월 12일 戊申)

子	36년생 지속적인 노력에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48년생 생산성을 재고 하라. 60년생 미진한 부분을 손질하라. 72년생 잘 챙겨 두는 것이 이롭다. 84년생 희비가 엇갈리는 하루가 될 것이니 감안하고 지내라. 행운의 숫자 : 80, 91
丑	37년생 본래의 취지를 희석시키지 말라. 49년생 얼마나 깊이 다뤄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61년생 내색하지 않아도 된다. 73년생 화동이 있을 수 있다. 85년생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일이 그대로 이뤄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6, 04
寅	38년생 급격적 절제하는 것이 지혜롭다. 50년생 고정 관념을 버려야 새로운 이치를 터득할 수 있다. 62년생 확실한 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74년생 정황을 살피면서 승고크기를 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07, 53
卯	39년생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도 고운 법이다. 51년생 중국적으로는 상호 이해관계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63년생 우연히 발생하는 행운이 상당한 영향력을 보인다. 75년생 자국이 절실히 요구된다. 행운의 숫자 : 15, 74
辰	40년생 당면한 현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52년생 작은 것에 기쁨이 있느니라. 64년생 여러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 볼 필요가 있다. 76년생 관점이 단순하다면 오만을 야기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4, 09
巳	41년생 소모적이거나 일회적이려면 버려야 한다. 53년생 짜임새 있는 시간 활용이 성과를 좌우할 것이다. 65년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줄줄 새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라. 77년생 손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10, 26

午	42년생 한 곳에 몰입하다보면 주변 상황이 소홀해지기 쉽다. 54년생 기본 일로 흥겨워 할 것이다. 66년생 혼자서 조용히 처리해도 되는 문제이다. 78년생 천 길 밧줄도 개미구멍 때문에 무너지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27, 61
未	43년생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5년생 효과는 대단히 클 것이다. 67년생 일시적인 현상에 좌우된다면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 79년생 과하면 역효과가 나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68, 18
申	44년생 미흡하다라도 수용하는 것이 백 번 나은 것이다. 56년생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니 빨리 정리 할수록 이롭다. 68년생 유연한 사고가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다. 80년생 절실하다면 체면 불구하고 요청하라. 행운의 숫자 : 83, 38
酉	45년생 여러 가지를 함께 살펴야 불패하지 않는다. 57년생 무리수를 두면 필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69년생 나가지만 고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81년생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대해도 좋다. 행운의 숫자 : 39, 56
戌	46년생 성과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다. 58년생 미진한 부분을 손질한다면 매끄러워지겠다. 70년생 짜임새 있는 설계가 희망찬 미래를 기약한다. 82년생 구색을 다 갖추다보면 특별함을 도모하기 힘들다. 행운의 숫자 : 79, 94
亥	47년생 때를 만났으니 마음껏 포부를 펼쳐도 된다. 59년생 핵심을 벗어난다면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71년생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정세가 달라진다. 83년생 기본 절차는 분명히 지켜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65, 9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불륜 논란’ 카야, ‘비정상회담’ 등 모든 프로그램 하차

방송에서 중립무전 활약하고 있는 터키 출신 방송인 에네스 카야(30·사진)가 2일 불륜 논란 루머에 휩싸이면서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에네스 카야는 현재 JTBC ‘비정상회담’과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영화채널 스크린의 ‘위클리 매거진 : 영화의 발견’에 출연하고 있으며, 채널CGV가 오는 4일부터 선보이는 ‘로케이션 인 아메리카’의 촬영에도 참여했다.

스크린은 “에네스 카야가 조금 전 연락을 해와 ‘위클리 매거진’에서 하차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이번 6일 방송부터 에네스 카야 대신 성우를 투입해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에네스 카야가 루머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프로그램에 누가 될 것 같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JTBC와 채널CGV는 “현재 에네스 카야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인터넷에는 에네스 카야를 둘러싼 루머가 불거졌으며 일파만파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아름다운예술인상’ 대상에 배우 최민식

재단법인 신영균예술문화재단(이사장 안성기)은 ‘제4회 아름다운예술인상’ 대상 수상자로 영화배우 최민식 씨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단 측은 “최씨는 영화 ‘명량’을 통해 영화의 힘, 우리 시대 배우의 카리스마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줬다”며 “‘똥 배송 감독의 ‘루시’를 통해 국제적인 연기인으로도 돋보이는 귀감을 남겼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1989년 ‘구로 아리랑’으로 데뷔한 최민식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남버’·‘쉬리’·‘해피엔드’·‘파이란’·‘취화선’·‘을

드보이’·‘범죄와의 전쟁’ 등 20여 편의 영화를 통해 깊이 있는 내면 연기로 사랑받아 왔다.

이밖에 공로예술인상은 원로 배우 엄앵란 씨, 연극예술인상은 ‘단테의 신곡’·‘나는 니다’ 등에 출연한 원로 연극인 박정자 씨, 신인예술인상은 ‘해무’의 박우천 씨에게 각각 돌아갔다.

‘아름다운 예술인상’은 매년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영화와 연극 예술인이나 일생을 통해 예술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예술인을 선정하는 상이다. 대상 부문 본선 심사에는 언론계 대 중문화 담당 현직 언론인들이 참여했다. 시상식은 오는 9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연광뉴스